

동네방네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선정 등 '쾌거'

경북 안동시가 행정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해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지난 1월 부산·강릉·목포·전주시 등 4곳과 함께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5년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도시 ▲재방문하고 싶은 전통문화 관광도시 ▲안동시

와 협업을 맺은 인근 시·군과 함께하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모바일, 모빌리티 등이 진행된다.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안동시는 최우수(SA) 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공약 계획·이행 분야에서 최우수(S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 앞당겨 진행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남지역 예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를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개인 창작 활동을 위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 다건으로 지원하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키로 했다.

공모 분야는 전통예술을 비롯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문화예술연구 등 5개 영역이다. 지원규모는 총 3억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문화예술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신임 원장 선임

(현 감사실장)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신임원장으로 배정철(57세·사진) 현 감사실장을 선임했다. KOMERI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배 감사실장을 제8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배 신임 원장은 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3년간 연구원을 이끌게 된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전자통신 공학사, 선박통신 공학석사, 해사통신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배 신임 원장은 1988년 중견 조선·해양IT기업인 사라콤의



연구소장을 맡아 20년 가까이 선박용 무선통신시스템 등 다양한 항해통신 장비 개발에 참여했다. 지난 2006년에 KOMERI 입사해 사업본부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감사실장으로 재직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한국조선해양IT학회장으로 업계 및 학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허의원 기자

담양군, 1단체 1화단 숲돌보미 운영

전통정원 특구를 선언한 전남 담양군이 군산림조합을 비롯해 55개 단체, 주민과 함께하는 1단체 1화단 숲돌보미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55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주민

들이 참여해 나무를 심은 식재지와 주민 참여 숲 조성지를 중심으로 화단을 지정해 관리하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톡톡'

경북도, 지역소비 전년수준 회복

지난달 카드소비 추정액 1.1조 셋째·넷째주 증감률 +1%, -3%

지난달 경북도내 카드 소비액과 자영업 가동률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14일 신용카드 매출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셋째 주를 기점으로 도내 카드소비액과 자영업 가동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 달 카드소비 추정액은 1조132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91억원(7%)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별 증감률은 첫째 주 -13%, 둘째 주 -6%, 셋째 주 +1%, 넷째 주 -3%로 나타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셋째 주 이후 도내 소비가 전년 동월에 근접했다.

개인소비액은 전년 동월 대비 6% 감



소했으나 법인은 23%, 외국인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에 비해 법인과 외국인의 소비가 전년에 비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소비액은 총 7829억원(전체 카드소비액의 69%)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첫째 주 -9%, 둘째 주 +2%, 셋째 주 +12%, 넷째 주 +2%로 둘째 주 이후 전년 소비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소비액은 3479억원(전체 소비액의 31%)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고 외국인 소비액은 1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해 역내 소비에 비해 역외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가동률은 지난 3월 59%

보다 많이 호전된 68%로 나타나 전년 동월 가동률(69%)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31일 현재 도내 긴급재난지원금은 도내 115만가구(전체 가구의 95%)에 7236억원(전체 지원금의 97%)이 지급됐다.

지급방법으로는 신용(체크)카드 57%, 현금 19%, 상품권 11%의 순이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은 2012억원으로 5월 전체 카드소비액의 1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용처는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33%), 주유소 등 생활서비스(26%), 한식점 등 F&B(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5%)이 여성(20%)에 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비중이 높았고, 소득분위별로는 5분위 32%, 4분위 30%, 3분위 30%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위, 법인 전환

민간주도 유치 강화... 총력 가동 서명운동 등 지역 유치 공감대 형성

부산의 엑스포 유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가 민간조직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15일 오후 3시, 벡스코 컨벤션홀(205호)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대표위원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법인전환 총회를 열고 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한다.

새로 출범하는 사단법인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지역 경제계 주요 인사가 대폭 참여하고 기존 참여 단체 및 조직을 재정비, 강화한다.

법인이사회에는 대표위원장으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기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성준 부산시 교육감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김지완 BN



유치위원회 정기총회 장면.

K 금융지주회장 외에 지역경제계 원로인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송규정 윈스틸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이 참여해 유치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2015년 7월 비법인 임의단체로 출범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대정부건의문 채택, 시민결의대회 및 시민대토론회, 국회세

미나 등 지역 차원의 유치 공감대 형성 및 유치 붐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계획이 지난해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치 추진궤도에 돌입한 만큼, 이에 맞춰 기존의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민간주도의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곡성군, 공모사업 선정... 전통시장 활성화 시동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2곳 등 경품행사, 문화공연 등 진행 예정

곡성군은 지역 전통시장 3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과 석곡전통시장이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고객 유치를 위한 경품 및 할인 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선정으로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은 국비 4,000만원, 석곡전통시장은 2,000만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등 경품행사와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곡전통시장은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선정돼 국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 전통시장 내에 불꽃,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화재가 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유근기 곡성군수(가운데)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Weather forecast for June 15th, including temperature (28-18°C), humidity, and regional weather map with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like Yeosu, Gwangju, and Seoul.